

우리나라 시지역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인적현황에 대한 질적 분석

— 백두시를 중심으로 —

김정근* · 김순화**

〈목 차〉

- | | |
|-----------------------|--------------|
| I. 서 론 | 1. 역사 및 운영주체 |
|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2. 시설현황분석 |
| 2. 연구방법과 자료 | 3. 인적현황분석 |
| II. 백두시 공공도서관의 지역적 배경 | IV. 결 론 |
| III. 백두시 공공도서관의 실태분석 | Abstract |

I. 서 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공공도서관은 최신정보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때에 제공해주는 정보센터로서의 기능과 각종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문화향수권을 신장시키는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평생학습장으로서의 사회교육기능을 부여 받고 있는 공공기관이다.¹⁾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람, 시설, 자료와 같은 구성요소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1) 박인웅·김정근·이연옥, “공공도서관 자료선정과 구입의 현단계 : S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제50권 제3호(1995, 가을), p. 4.

요소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미약하다면 도서관활동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필자들은 이 글에서 ‘백두시(가칭)²⁾’라는 지역도시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시설현황과 인적현황(다만, 자료부분은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할 주제로 생각되어 이 연구에서는 제외시켰으며 별도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생각이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분석을 통하여 백두시를 배경으로 하여 일어나는 도서관 구성요소의 특수한 사정을 밝혀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이 현단계에서 드러나며,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연구방법과 자료

이 글은 질적연구방법에 의해서 진행된다. 우선 ‘질적연구³⁾’는 자연적인

- 2) 위의 시는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도시를 익명화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질적연구의 한 패러다임인 ‘문화기술적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예로 류재정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전라남도 B군에 소재한 농업계 고등학교를 ‘봉화농고’라는 가칭을 사용하여, 농업계 고등학교의 교육현실에 관한 문화기술적 탐구를 해 냈다. 柳在正, “農業系 高等學校 教育現實에 관한 文化記述의 研究 : 학생의 생활과 취업의 의미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2).
- 3) 질적연구방법은 필자들이 속해 있는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공동작업실에서 몇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서, 우리들은 이 방법을 통하여 문헌정보학의 현실적합성, 실천성, 주제성, 실사구시의 학문을 개척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다.

L. S. Barritt et al., 教育研究와 現象學的 接近, 홍기형 譯(서울: 문음사, 1990) ; Robert C. Bogdan and Sari Knopp Biklen, 教育연구의 새 접근: 질적연구, 신옥순 譯(서울: 교육과학사, 1991) ; Alan Bryman, 사회연구에 있어서 양적방법과 질적방법, 홍동식·조정문·고승한 譯(부산: 전문출판사, 1992) ; James P. Spradley, 文化探究를 위한 參與觀察方法, 李熙奉 譯(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9) ; James P. Spradley, *The Ethnographic Interview*(Orlando, Florida: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1979) ; Corrine Glesne and Alan Peshkin,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New York: Longman, 1992) ; Sharan B. Merriam,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환경이 자료의 직접적인 근원이며, 연구자 자신이 주된 연구도구⁴⁾가 된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나 산물보다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며, 모은 자료를 귀납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즉, 미리 가지고 있던 가설을 입증하거나 부인하기 위하여 자료와 증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구자가 모은 낱말의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합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체계를 드러낸다.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여 상세하게 기술을 하며, 의미 또한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질적연구의 이러한 특성에 따라 필자들은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이해하고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단순한 통계수치의 나열에서 벗어나, 수년간 문헌정보학 강단에서 미국식 문제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터와 역사의 의미를 건져 올리려고 노력해 온 문헌정보학자의 시각과 다년간 공공도서관 현장에 근무하면서 우리의 공공도서관의 실체를 보고 체험했던 사서의 눈을 통하여 문제를 사실적으로 짚어 내려가고자 했다. 하나의 초상화(portrait)를 그려냄으로써 그 속에서 문제의 깊은 의미와 해답의 실마리를 건져 올리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필자들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백두시’ 공공도서관들이 내부에서 업무용으로 생산한 ‘운영계획 및 현황’, ‘업무계획’, ‘요람’등의 원시자료(archival materials)⁵⁾와 일간신문들의 기사, 이용자 및 사서들과의 면담자료, 그리고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백두시 공공도서관이 현재 서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서술적으로 그려보았다.

Qualitative Approach(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1988) ; Robert Yin, *Case Study Research : Design and Methods*(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1984).

4) Robert C. Bogdan and Sari Knopp Biklen, *교육연구의 새 접근 : 질적연구*, 신옥순 譯(서울 : 교육과학사, 1991), pp. 43-49.

5) 김정근,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서울 : 한울, 1995), p. 18.

II. 백두시 공공도서관의 지역적 배경

‘백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공업도시’라는 개념이다. 정부가 1962년 공업센터 건설 기공식 후 기간산업을 비롯한 계열 산업을 건설 하면서 백두의 공업은 비약적으로 발전, 현재는 우리 나라 굴지의 공업도시로 부상하게 되었다. 백두의 공업화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초기에는 정유, 비료공장 등 10개 미만의 공장이 건설되거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제2, 3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에는 화학, 화섬, 기계, 정비, 금속, 전력 등 각종 기간산업과 계열 산업이 건설됨으로써 공업단지로서의 완전한 변모와 함께 우리 나라 산업의 요람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현재에 이르고 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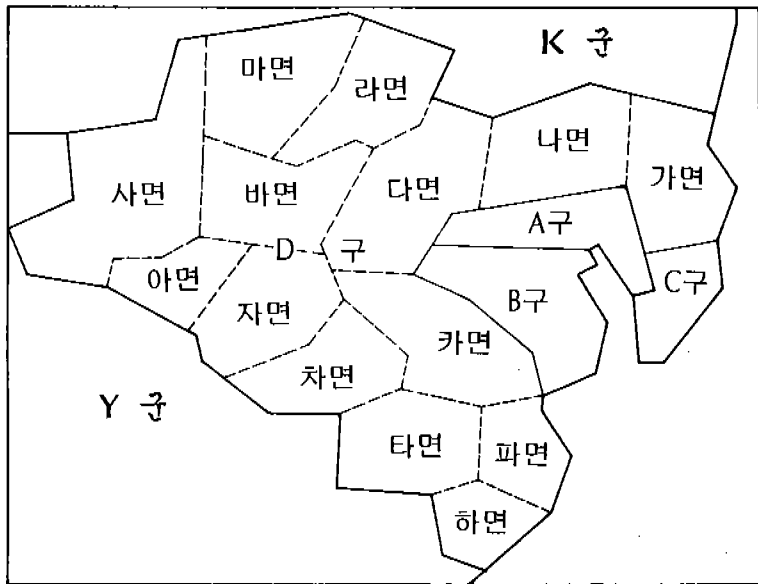
한편 백두는 1995년 1월 1일자로 백두시와 군이 통합되어 하나의 도시로 출범하면서 면적 1천 52km², 인구 94만여명의 거대도시로 성장하였다. 이때 면적으로만 본다면 光州와 大田, 仁川 등 기존 직할시보다 훨씬 크다. 행정구역은 이제 4개구로 늘어나 직할시급에 가까운 도시로 변했으며, 기존의 A·B·C구에다 D군이 D구로 바뀌어 A·B구는 각 17개동이, C구는 9개동, D구는 14개면 296개리를 관할하게 되었다.⁷⁾ 그리고 지역주민과 관련단체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시의 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하여, '97년 7월 15일자로 광역시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다. 통합백두시의 행정구역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⁸⁾

6) K도백두교육청, 우리고장 백두(1991), pp. 118-119.

7) “백두통합시 어떻게 달라지나<上>”, K일보, 1995. 1. 1.

그리고 이 행정구역은 연구가 진행되던 중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에서 읍설치를 승인함에 따라, 1996년 2월 1일부터 2개의 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되었다. 백두교육청, “읍(邑)설치 통보”, 회보, 제2호(1996. 1. 25), p. 2.

8) 아래 <그림 1>의 경우도 ‘읍설치승인’에 따라 ‘바면’이 ‘바읍’, ‘파면’이 ‘파읍’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바·파읍 출범 업무 돌입”, K일보, 1996. 2. 1.



출처 “백두통합시 어떻게 달라지나 上 K일보, 1995. 1. 1.)

〈그림 1〉 통합백두시 행정구역

Ⅲ. 백두시의 공동도서관의 실태분석

1. 역사 및 운영주체

(1) 역 사

백두시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인 공공도서관의 역사는 1984년 8월 A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시작된다.⁹⁾ 따라서 이 지역 공공도서관의 나이는 최

9) 이하 연구대상 도서관의 명칭은 A·B·C·D도서관으로 한다. 이때 기준은 〈그림 1〉의 4개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말하자면 A구에 있는 도서관은 A도서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전개는 앞으로의 내용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초로 문을 연 A도서관을 기준으로 할 때 12여년 정도로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서 벗어나 성장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성장과정에 비유하면 국민학교 5학년 수준이다. 이것은 80년대부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수적으로 늘어난 것과는 일치하지만 이 지역이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속에서 빠르게 성장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흔히들 백두시를 ‘문화의 불모지’라고 표현하는 것과는 관련이 있는 듯하다. 한때 항간에는 백두시에 대규모의 공장이 들어서면서 유흥시설은 잘 발달되었지만 지역주민의 정신을 살찌우게 할 문화시설은 부족하다는 말이 있었다. 하여간 그 후 공공도서관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 '89년 B도서관, '92년 C도서관, '91년에 D도서관이 개관하게 된다. D도서관은 '95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백두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편입된 것이다. 여기서 A·B·C·D도서관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A도서관은 상가밀집지역에 위치하고, B도서관은 학교와 주택 밀집지역이며, C도서관은 산업체 밀집지역에 신설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¹⁰⁾ D도서관은 농촌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상으로 대략 살펴본 백두시 공공도서관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¹¹⁾

○A도서관

- 1984. 5. 31 도서관건립 준공
- 1984. 6. 30 백두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제정공포(교육장 운영)
- 1984. 8. 3 개관

10) 문홍일, “地方化時代를 맞이한 백두지역 公共圖書館 小考”, 호우회지, 제6호(1992. 6), p. 17.

11) 아래 요람들은 필자들이 자료수집 과정에서 모은 것으로 발행년도가 1-2년 지나긴 했지만 각 도서관에서 가장 최근에 간행된 것들이다. 이것으로 보아 그들은 해마다 요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 내용을 갱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 내용이 된 연혁에는 현재까지 달라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 '93 A도서관요람
- '94 B도서관요람
- '94 C도서관요람
- '94 D도서관요람

- 1985. 9. 3 이동도서관 개관(비둘기호)
- 1986. 9. 3 이동도서관 개관(비둘기 2호)
- 1988. 12. 20 백두시립 A도서관으로 개칭
- 1990. 8. 17 이동도서관 휴관(비둘기 2호)
- 1991. 2. 6 이동도서관 대체(비둘기 1호 중형증합)
- 1991. 3. 26 백두A도서관으로 개칭
- 1991. 4. 24 이동도서관 폐관(비둘기 1호)

○ B도서관

- 1988. 12. 17 도서관 준공
- 1988. 12. 20 백두시립B도서관 설치조례 공포
- 1989. 1. 6 백두시로부터 운영관리권 인수
- 1989. 3. 29 개 관
- 1990. 9. 6 이동도서관 개관
- 1991. 3. 26 백두B도서관으로 기관명칭 변경

○ C도서관

- 1991. 11. 7 백두C도서관 설치조례 공포(K도조례 2092호)
- 1992. 3. 2 백두시로부터 운영관리권 인수
- 1992. 3. 5 개 관(준공)
- 1993. 2. 2 이동도서관 운행

○ D도서관

- 1990. 12. 27 D도서관 설치조례 공포(D군 조례 제1199호)
- 1991. 3. 27 도서관 건물 준공
- 1991. 8. 26 조경 및 부대시설 공사
- 1991. 10. 11 개 관

(2) 운영주체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운영주체가 일원

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도서관인들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및 인사권은 교육부나 내무부 산하조직에 속하고 지도 지원 등 정책총괄만을 문화체육부가 담당하게 되는 현행 공공도서관 운영체제의 파행구조 때문에 그 운영에 소극적이거나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도서관정책상 일관성이 결여된 웃지 못할 현상을 빚고 있다.¹²⁾

백두시 공공도서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도 지원 등 정책총괄은 문화체육부로부터 받고 있으며, 재정 및 인사권은 K도 교육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백두교육청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모순구조를 안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교육청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 기관은 공공도서관과 상호협력관계에 놓여 있으며, 사서들과 밀접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사서들은 이 기관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선 아래의 진술을 들어보자.

도서관 일 때문에 가끔 교육청에 가고 거기서 도서관관련 담당자들도 만나는 편이다. 그런데 그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우선으로 친다. 예산만 해도 학교운영비를 다 맞추고 난 다음 도서관을 생각한다. 도서관은 서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그래서 나는 한때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아서 도서관에 대해 인식을 시켜주어야 한다고 마음을 가다듬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도서관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주 바뀐다는 것이다. 보통 3년 정도 담당을 하는데 발령초기에는 도서관이 무엇인지 몰라서 잘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이해할만하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 가버린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발령 받아 와서는 그러한 과정을 반복한다. 따라서 나는 우리의 권리를 찾으려면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 사서가 한사람씩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 보건직도 시교육청, 도교육청, 각학교에 들어가 일을 하면서부터 힘이 생겼다. 이런 사람들도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¹³⁾

그녀가 이러한 인식에 이르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들을

12) “공공도서관 이대로 안된다 <7> 운영”, 국제신문, 1994. 5. 3.

13) B사서와의 면담(1995. 4. 7).

대하다 보면 도서관이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심어 주어야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지만, 업무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그것마저 어려워지자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사서들이 직접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적극적인 방법을 이끌어낸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간혹 사서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교육청이 그저 예산이나 내려주고 행사보고나 받는 등 공공도서관을 지나치게 행정위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공도서관 업무의 상당 부분이 부수적인 일들로 되어 버렸으며, 공공도서관의 내부조직 중 열람과, 사서과보다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서무과의 비중이 커졌다고 한다. 그렇다고 사서들이 교육청 공공도서관 실무자와 만나 도서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그런 일은 서무과 직원이 처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서들은 교육청을 대하기 어려운 곳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직접 도서관 운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2. 시설현황분석

(1) 시설규모

일반적으로 도서관의 주요 구성요소에서 사람, 자료, 서비스시스템을 도서관활동의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건물/시설은 도서관 활동의 하드웨어로서, 도서관 활동의 전 영역을 포괄하여 하나의 단위로 구성함으로써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릇이라 할 것이다.¹⁴⁾ 그렇다면 백두시는 도서관 활동을 수행할 그릇을 마련해 놓고 있는가. 우선 <표 1>을 통하여 백두시 공공도서관의 시설규모를 본다.

14) 공동작업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중측프로그램 설계 : 주체도서관을 구상하며”, 학기논고집(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제4집(1994), p. 60.

〈표 1〉 백두시 공공도서관 시설규모(1995년 12월 현재)

| 연번 | 도서관명 | 시 설 규 모 | | | 비고 |
|----|------|---------|-------|----------------|----|
| | | 건물(평) | 좌석수 | 이동도서관 | |
| 1 | A도서관 | 644 | 853 | 24인승 승합차량 1대 | 별관 |
| 2 | B도서관 | 1,355 | 1,808 | 25인승 중형특장버스 1대 | |
| 3 | C도서관 | 1,021 | 1,033 | 35인승 중형버스 1대 | |
| 4 | D도서관 | 316 | 300 | | |

(출처 : '95 A도서관 운영계획 및 현황

'95 B도서관 업무계획

'95 C도서관 업무계획

'95 D도서관 현황

"B이동도서관 「온누리號」운영시작", K일보, 1990. 9. 7.

"C도서관 移動도서관 개설", Y매일, 1993. 1. 14)

현재 이들 공공도서관은 백두시 각 자치구에 한곳씩 설치되어 있어 얼핏 보기에 구색을 갖춘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한 불균형을 느낄 수 있다.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각 공공도서관마다 건물이나 좌석수에서 나타나는 차이다. 예를 들어 B도서관과 D도서관을 비교해 보면 B도서관이 건물에서 1,000평 이상, 좌석수에서 1,508석을 더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D도서관의 시설규모가 작은 것은 봉사대상지역이 좁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답은 <그림 1>을 통하여 명쾌하게 내릴 수 있다. <그림 1>을 보면 D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D구는 백두시에서 가장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무려 14개면 296개리에 이르는 것이다. 명색이 D구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라면 D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바'면의 지역주민만이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요구가 일어난다.

도서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면을 제외한 D군내 13개면¹⁵⁾

15) 이것은 '92년 기준의 행정구역이며, 현재는 앞서 설명했듯이 14개면으로 되어 있다.

주민들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동도서관 제도를 신설하고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전개하는 문제도 차체에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¹⁶⁾

위의 기사 내용은 D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동도서관 운행’과 ‘다양한 문화행사의 전개’로 요약된다. 여기서는 이동도서관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자료조사 과정에서 D도서관에 있는 사서를 만났을 때도 이동도서관의 문제가 거론 됐다. 그들은 이동도서관 운행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요구가 많아 관련기관에 요청을 했으나 별 소득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동도서관의 문제는 D도서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기존 운행하고 있는 백두시의 공공도서관들도 이동도서관이 1대뿐이며, 그나마 차량의 규모가 작아 가구수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가 주민들은 이용을 할 수 없는 등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의 교육수준과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내 각 도서관에 이동도서관 방문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나 시설·장비 부족으로 시민들의 독서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C도서관의 경우 이동도서관을 통한 도서대출이 전체대출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독서회원도 42%를 차지하는 등 이동도서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1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5일 단위로 거리가 먼 지역을 순회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⁷⁾

백두지역 시립도서관에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이동도서관이 아파트단지 위주로 순회하는 등 소극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일반 주택가의 주민들은 이용실적이 낮다는 지적이다.¹⁸⁾

여기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기본질문으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공공도서관 수의 부족에서 생기는 문제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 가까이에 있다면 이동도서관 운행요청이 쇄도하겠는가. 백두시는 그

16) “D도서관 제기능 못한다”, Y매일, 1992. 8. 7.

17) “차량이동圖書館 너무 적다”, K일보, 1994. 5. 12.

18) “이동도서관 운영 태만”, Y매일, 1994. 1. 29.

동안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인 공공도서관 건립에 소홀해 왔다. K일보 논설실장인 조돈만의 글을 인용해 보자.

지자체 선거때 그 많은 공약중에 어느 후보도 자기 선거구에 도서관을 짓겠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린벨트를 풀겠다느니 도로를 어찌겠다느니 공해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느니... 장미빛 공약은 참 무성했다. 그러나 공해 문제를 공부하고 백두시를 연구할 자료가 있을 도서관에 대한 실질적인 목소리가 없었으니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결국 백두의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은 미래의 정신문화를 내다볼 줄 모른다는 말인가.¹⁹⁾

다행히 그의 외침 이후 백두시에는 2개의 공공도서관이 더 건립되어, 현재 4개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단적인 예로 '95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백두지역의 주민등록상 인구현황을 집계한 결과 A구 28만3천5백12명, B구 30만4천3백2명, C구 19만1천4백96명, D구 18만7천3백1명으로 밝혀졌다.²⁰⁾ 이 통계에 따르면 백두시의 한 공공도서관당 봉사대상자수는 평균 24만1천여명이 된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의 봉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미국의 공공도서관을 이야기 한 정운현 기자의 글이 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

미국 전역에는 2마일(3.2km)마다 공공도서관(public library)이 마치 인체의 실핏줄처럼 쳐져 있다. 이들은 단순히 통계숫자에서나 언급되는 문화시설 정도가 아니라 미국 교육의 터전인 동시에 주민들의 실생활 편의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이 미국 학문 공동체의 근간이라면, 각종 공공도서관은 미국사회의 「신경조직」으로 일컬어도 무방한 실정이다.²¹⁾

위의 글을 바탕으로 그 각각의 공공도서관을 실핏줄로 본다면 백두시의 공공도서관은 죽어 있는 상태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4개의 실핏줄로 어

19) 趙敦萬, “도서관황무지 「백두」”, K일보, 1991. 7. 13.

20) “백두시 인구 97만명 육박”, K일보, 1996. 1. 5.

21) 鄭雲鉉, “미국의 공공도서관 동네마다 하나씩 생활속의 문화·정보기지”, 시사월간 WIN, 1995. 9, p. 191.

떻게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겠는가.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건물의 덩치보다 작게, 많이,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다음의 기사속에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며 백두시의 시설규모를 마무리짓고자 한다.

전국적인 도서관 부족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도서관 확충은 인구밀 집지를 중심으로한 소형·다수의 신설이 돼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백두지역의 A·B·C도서관은 9백~2천석규모에 30~4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D도서관은 3백석규모에 4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도서관은 규모가 큰 반면 이용지역이 너무 광대해 도서관인근 지역주민들이 주이용객이 되고 있고 특히 D도서관의 경우는 도서관이 위치한 '바'면민 들만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관관계자들은 도서관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생활권속에서 쉽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의 소형화와 다수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²²⁾

(2) 위 치

백두시의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은 수의 부족에서도 기인하지만 잘못된 위치선정에서 오는 폐단도 심각하다. 무엇보다도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언제 어느 때라도 필요한 자료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나 백두시의 공공도서관은 거의가 도로변에서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해 있다. 버스에서 내려 10분에서 20분정도 걸어야 하는 것이 예사다. 따라서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공공도서관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공공도서관을 찾는 일은 기대할 수 없다. 특히 C도서관과 D도서관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두 도서관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먼저 C도서관은 공원조성계획부지내에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한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물론 이 도서관의 개관은 부지난과 예산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H중공업이 4천3백여평의 부지를 제공하고, 총공사비 31억여원 중 16억원을 출연하여 '92년 3월 문을 열 수 있었다.²³⁾ 그 결과

22) "도서관 「작게...많이」 전문화돼야", K일보, 1994. 5. 19.

23) "H學園, 도서관중", Y매일, 1993. 12. 18.

C구의 주민들은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점은 참작이 되지만, 그러나 공원이란 어떤 곳인가. 공중의 보건·교화·휴양·유희(遊樂) 등을 위하여 시설된 정원·유원지·동산 등의 사회시설²⁴⁾이 아닌 가. 이런 시설들은 인적이 뜸하고 많이 걸어서 운동도 되며 산뜻고 공기 좋은 지대에 위치하게 된다. 버스도 다니지 않고 가로등도 없으며, 평지가 아닌 오르막길의 산중턱에 C도서관이 덩그러니 올려진 것이다. 그래서 아래의 문제들은 이미 예측 가능한 결과들이었다.

특히 부지단 등을 이유로 기존 시내 도로에서 1km나 떨어진 곳에 도서관을 만들어 교통불편 등으로 이곳을 찾는 사람이 소수에 지나지 않고 있다. 개관하고부터 지금까지 평균 하루 이용자는 평일 60여명, 휴일 2백~3백명밖에 안돼 시내버스노선의 연장 등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²⁵⁾

C구청은 올해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C도서관 일대 간선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일대는 특히 C도서관을 이용하는 C지역 중·고교생들이 그동안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 왔을 뿐아니라 우범지역으로 알려져 가로등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²⁶⁾

개관 초기에는 끝내 졌다. 비오는 날에는 이용자가 아예 없었고, 더운 날, 추운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날에는 이용자수보다 직원수가 더 많았다. 요즘은 버스가 다녀서 이전보다 이용자 수가 조금 늘었다.²⁷⁾

한때 백두시의 사서들에게는 E사서의 진술처럼 'C도서관에는 이용자수보다 직원수가 더 많다더라'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그리고 알음알음으로 그 도서관에 출퇴근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도 익히 알려 졌다. 날씨 좋은 봄·가을에는 운동삼아 시내버스정류소에 내려 도서관까지 오르내리지만 비 오는 날이나 춥고 더운 날은 힘이 너무 들어 택시를 타거나 지나가는 자가용을 세운다고도 했다. 그리고 그 도서관에 새로 발령 받아 오는 사서들에게 출

24) 民衆書林, 民衆 엡센스 國語辭典(서울: 民衆書林編輯局, 1994), p. 203.

25) "C도서관 제구실 못한다", K일보, 1992. 3. 19.

26) "C도서관 일대 밝아진다", Y매일, 1994. 1. 23.

27) E사서와의 면담(1995. 7. 7).

퇴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염려해 주는 일은 빠지지 않는 인사절차다. 그러나 그들은 그 도서관이 그들의 일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도서관에 나온다. 그렇다면 이것이 C지역주민들에게도 가능한 일일까.

바로 위의 인용문에서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교통불편 등으로 이곳을 찾는 사람이 소수에 지나지 않고 있다, 추운 날씨 또는 더운 여름철과 비오는 날에는 이용객이 현저히 줄어든다, 우범지역이다'라고 이야기 한다. 또한 C도서관에 있는 사서들도 이용자로부터 이러한 지적을 자주 듣는다. 어떤 이용자는 사서와 친분이 쌓이면 '어찌자고 이렇게 교통이 불편한 곳에 도서관을 지어 놓았느냐'며 하소연을 한다. 그리고 항상 자기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오던 한 주부는 12월이 되자 '날씨가 추워 더이상 도서관에 오기가 힘이 든다. 혹시 아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따뜻한 봄에 다시 만나자'라는 말을 남기고 책을 반납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다음해 봄이 되어야 그 이용자를 다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C도서관에서 일어나고 있다. 물론 '92년 개관 초기보다 3년이 지난 '96년 5월 현재 3개의 버스노선이 신설 혹은 연장되어 이용자 수가 늘었다. 그러나 평일에는 도서관을 찾는 지역주민들이 극히 적어 각 자료실에는 썰렁함이 감돈다. 적막하기조차 하다. 도대체 이용자가 없는 공공도서관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공공도서관은 언제까지 '언덕위의 하얀집'이어야 하는가.

D도서관의 경우도 변화가에서 1km가량 떨어진 국도변의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개관 4년째를 맞고 있는 D도서관이 위치선정 잘못으로 이용율이 저조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D군 '바'면 어음리에 위치한 D도서관은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지난 91년 10월 문을 열었다. 그러나 D도서관은 '바'면의 변화가에서 1km가량 떨어진 외진 국도변에 위치해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²⁸⁾

28) "D도서관 제구실 못한다", Y매일, 1994. 5. 10.

D도서관의 이러한 실상은 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김순화가 자료수집을 위하여 그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그녀는 그 도서관 사서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의도를 밝혔다. 그랬더니 도서관에 오는 차편을 상세하게 알려 주었다. 그 설명에 따르면 백두사에서 D도서관에 가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백두사와 D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바'면간 운행되는 시내좌석버스를 타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백두사와 '바'면간 운행되는 원행버스를 타는 것이었다. 이들은 각각 노선이 달랐으며, 전자는 고속도로를 후자는 국도를 이용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빠른 전자 쪽을 선택했다. 그 당시 과정을 그녀의 기록에서 들쳐본다.

오전 9시 40분 집앞에서 택시를 타고 K로터리로 출발하여 10시쯤 그곳에 도착했다. 아직 바람이 차고 안개가 조금 낀 날이었지만 배낭을 메고 삼삼오오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봄을 느낄 수 있었다. 5분후 '바'면으로 가는 513번 좌석버스를 탔다. 배차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15분 간격이었으며, 차비는 800원이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가는 산에는 진달래가 피어나는 중이었고, 개나리는 노란 꽃잎이 떨어지고 파란 잎들이 돌아나는 중이었다. 10시 15분 513번 좌석버스는 M동 정류소에서 몇 명의 승객을 태우고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그순간 고속도로 양옆으로 활짝 피어있는 흰 배꽃이 눈에 들어왔다. 멀리서 본 그 광경은 어릴적 본 메밀꽃을 연상시켜 무척 인상적이었다. 10시 30분 좌석버스는 '바'면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10시 35분 '바'면터미널에 도착했다. 오늘이 장날인지 터미널 옆 골목골목에는 고추, 콩, 쌀, 채소를 파는 사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나는 터미널에서 다시 백두가는 원행버스를 탔다. 표파는 직원에게 D도서관에 간다고 했더니 600원짜리 표를 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 나올때에는 300원을 달라고 했다. 내가 위치를 잘못 말했었나? 아무튼 20여명의 승객을 태운 그 버스는 10시 45분 '바'면터미널을 출발하여 5분 후인 10시 50분에 드디어 D도서관 정문에 도착했다.²⁹⁾

물론 그녀가 백두사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D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앞의 기사처럼 배차시간이 길고,

29) 현장방문일지 중에서(1995. 4. 7).

백두 시내에서 길이 막히면 그 시간마저 불규칙한 백두·'바'면간 원행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그 이후로도 연구자는 D도서관을 찾을 일이 몇 번 있었는데 버스운행 시간이 잘 맞지 않아 '바'면터미널에서 D도서관을 오갈 때 택시를 탔다. 그러나 더 맥이 빠지는 것은 D도서관을 마주 대했을 때다.

그녀는 D도서관 정문 국도변에 내려 주위를 한참 둘러보았다. 저 멀리 드문드문 주택이 보이고 농촌 그대로의 소박한 가옥도 보인다. 아파트도 한동 보인다. 곧 모가 심어지고 벼가 여물 논도 펼쳐져 있다. 아주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외진 곳이었다. 도대체 이런 곳에 도서관이 들어서다니 말이 되는가. 바로 옆에 위치한 백두교육청 제2청사마저 '95년 1월 1일 백두군의 백두시 통합으로 건물만 남겨둔채 백두시교육청으로 옮겨간 상태라 D도서관 주변은 더욱 생기가 없어 보였다. 그래서인지 그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서들은 도서관을 '유배지'라고 표현하며, '유배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정말이지 옮길 수만 있다면 어디 좋은 장소로 옮겼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이렇듯 공공도서관의 잘못된 위치선정은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관련기관의 깊이 있는 이해는 없고, 문제는 계속 쌓여만 간다.

(3) 자료실별구성

이번에는 백두시 공공도서관의 '자료실별구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람들은 공공도서관 건물이 세워지면 이용가능한 내부시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공공도서관 측에서는 거기에 따라 각종 자료를 구비하게 된다. 그 구성은 아래 <표 2>와 같다. 아래 <표 2>의 배열은 각 공공도서관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실의 크기에 상관없이 관련시설끼리 배치해 놓았다. 대상은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료실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만 A도서관의 경우 현재 서예실이 기존 일반열람실 공간을 할애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93 A도서관 요람' 이나 '95 A도서관 운영현황 및 계획'에 그 크기가 나타나 있지 않아 건물점유면적에 포함시키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

〈표 2〉 백두시 공공도서관 자료실별구성(1995년 12월 현재)

| 관별 구분 | A도서관 | B도서관 | C도서관 | D도서관 |
|-----------------------------------|---|--|--|--|
| 자료 실 별 구 성 | 일반자료실 어린이실 참고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서예실) | 1·2개가열람실 아동열람실 참고열람실 정기간행물실 시청각실 어학실 서예실 독서회실 | 1·2개가열람실 기술정보자료실 모자아동열람실 참고열람실 정기간행물실 서예실 | 서 고 아동열람실 참고 및 정기 간행물실 회의실 |
| 건물점유 면적 m ² (전체) | 601(2,124) 28.3(%) | 1,523(4,479) 34.0(%) | 1,008(3,375) 29.9(%) | 252(1,043) 24.2(%) |

(출처 : 백두시 A·B·C·D도서관 '95운영·업무계획 및 현황)

그러면 위의 <표 2>를 바탕으로 다음 몇 가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단행본 일반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자료실에 관해서다. 단행본 일반자료를 비치하고 있는 곳은 A도서관의 일반자료실, B·C도서관의 개가열람실, C도서관 기술정보자료실, D도서관의 서고다.

이때 이용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가열람실'이라는 명칭이다. 사서들이 '그곳에는 이러이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왜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사서들도 가끔 이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데 불합리하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서 그 원인은 '아마도 과거 공공도서관이 폐가제 운영에서 개가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자 거기서 명칭을 그대로 가져 왔으며, 또 하나는 새로 공공도서관이 생기면 기존 공공도서관을 모델로 하기 때문에 답습의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들 자료들은 뚜렷한 기준없이 1·2개가열람실로 나누어져 있어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다. 잠시 C도서관의 모습을 보면 KDC분류표에 의한 종류(000)에서부터 예술(600)분야는 1개가열람실에(500대의 기술과학은 제외), 기술과학(500)은 기술정보자료실에, 어학(700)에서부터 역사(900)분야의 자료는 2개가열람실에 비치하고 있다. 여기에서 분리는 주제별³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관리의 측면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이 점을 사서들도 미리 인식하여 어느 한 층에 자료를 집중적으로 비치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다음은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이 갖추어야 한다는 노인열람실이나 장애자열람실은 차치하고라도 시청각실, 어학실을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B도서관 뿐이다.

또한 기술정보자료실은 산업현장과 밀접한 C도서관만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1개가열람실과의 통합을 계획하고 있다.³¹⁾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지역에 관한 자료수집은 대학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 등 도서관의 다른 관중에 비하여 기대되는 역할이 크다. 특히 지방자치제 하에서 공공도서관의 향토자료 수집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백두시에는 현재 이들 자료들이 참고열람실에 통합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논의를 진행하다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바로 '자료실 공간이 부족하다, 좁다'라는 이야기이다. A도서관이나 D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은 그들도 시청각실이나 어학실을 만들고 싶지만 사용할 공간이 없다고 말을 한다. 그리고 A도서관의 경우 개관 후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그동안 자료의 양이 상당히 증가했으나 기존 공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자료실이 포화상태다. 몇년째 자료실의 공간확장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실

30)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주제별'이라는 용어보다 통상 '류별'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이하 '주제별'은 '류별'로 통일을 시키며, 아울러 '류별'은 '주제별'을 의미한다.

31) 결국 그 계획은 '96년 1월 중순에 실행이 되어, 겨우 명맥만 유지하던 기술정보자료실은 제1개가열람실에 통합이 되었다.

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도서관 건물내에서 실제 자료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는 것이다. 위의 <표 2>를 보면 A도서관 28.3%, B도서관 34.0%, C도서관 29.9%, D도서관 24.2%로 평균 약29% 정도에 그친다. 반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일반열람실의 비중은 거의 자료실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백두시 공공도서관 일반열람실 점유면적(1995년 12월 현재)

| 관별 구분 | A도서관 | B도서관 | C도서관 | D도서관 |
|-------------------------------|----------------------------------|-------------------------|-----------------------|-----------------------|
| 건물점유면적 m ² (전체) | 787(2,124) (서예실포함) 37.1(%) | 1,106(4,479) 24.7(%) | 627(3,375) 18.6(%) | 245(1,043) 23.5(%) |

(출처 : 백두시 A·B·C·D도서관 요람)

특히 현재 자료실의 공간부족이 심각한 A도서관의 경우 일반열람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37.1%이다. 비록 서예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규모가 작아 이 비율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듯하다. 비교적 최근에 개관한 C도서관의 경우 일반열람실 공간이 다소 줄어 18.1%에 머물고 있지만 전체를 평균하면 그 비율은 약 26%에 이른다.

따라서 백두시 공공도서관의 자료실공간 부족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열람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열람실의 규모를 축소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의견에 사서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하여 많은 갈등을 겪는다. 그것은 단순히 작업이 방대하여 실행하지 못하는 면보다 좌석수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의 규모를 가늠하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좌석수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에 발령 받아 올 관장의 급수가 정해지고 예산이 배정된다고 한다. 평일에는 텅빈 공간으로 두다가 주말이나 시험기간, 방학 때 찾아드는 학생들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은 일반열람실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공공도서관은 공부방이

다'라는 낙인을 여전히 달고 있다.

결국 백두시 공공도서관의 자료실별 구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좌석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자료실로 전환될 때 보다 나은 모습으로 꾸며지리라 기대된다.

3. 인적현황분석

도서관문제를 거론함에 있어서 사람의 문제는 시설이나 자료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것³²⁾이며, 도서관이란 체제를 움직이는 원동력³³⁾이 된다. 즉, 비록 도서관에 좋은 자료가 많고 시설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도서관을 제대로 움직일 사람이 없다면, 좋은 자료와 시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도서관 구성요소의 중요한 한 부분인 '백두시 공공도서관의 인적환경'을 진단해 본다. 단, 공공도서관의 주체가 되어야 할 사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한다. 먼저 '직원현황'은 아래 <표

<표 4> 백두시 공공도서관 직원현황(1996년 3월 1일 현재, 현원/정원)

| 연 번 | 도서관명 | 행 정 직 | | 사서직 | 기능직 | 계 |
|-----|-------|-------|-----|-------|-------|---------|
| | | 관 장 | 직 원 | | | |
| 1 | A 도서관 | 사무관 | 3/3 | 10/10 | 17/17 | 30/30 |
| 2 | B " " | 서기관 | 5/5 | 11/12 | 25/26 | 41/43 |
| 3 | C " " | " " | 4/5 | 14/15 | 23/23 | 41/43 |
| 4 | D " " | 주 사 | 1/1 | 2/2 | 2/2 | 5/5 |
| 계 | | 13/14 | | 37/39 | 67/68 | 117/121 |

(출처: 백두시 A·B·C·D도서관 요람을 바탕으로 현장방문조사, 1996. 2. 23)

32) 김정근, 앞의 책, p. 38.

33)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등 편, 부산대학교도서관개혁운동자료집, 1987. 9~1988. 12. (부산: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1989), p. 5.

4)와 같다.³⁴⁾

보통 백두시 공공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은 백두시의 기존 공공도서관을 평가할 때 시설이나 인적구성에 있어 백두시가 속해 있는 K도의 다른 공공도서관보다 낫다고 말을 한다. 그것은 K도의 경우 이들 도서관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소규모 군립공공도서관이 많기 때문이다. 아래 사서의 진술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된다.

나는 학교다닐때 한 군립공공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도서관에는 책이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용자들은 모두 자기책 가져와서 앞에 놓고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다. 그나마 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는 사서는 1명 뿐이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몇 편의 글을 통해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공공도서관의 모습을 지나라하게 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백두시 공공도서관에 발령 받아 왔을 때에도 그 단계와 비슷하지 않을까 염려했었는데, 그 도서관보다는 사서수도 많았고 어느 정도 정비된 모습이였다. 체계도 있었다.³⁵⁾

그러나 이 이야기에 이어 사서들은 현실을 더 깊이 파고든다. 분석의 근거는 사서직의 수와 기능직의 수에서 찾는다. 위의 <표 4>를 보면 현원으로 사서직의 수는 37명, 기능직의 수는 67명이다. 비율로 보면 31.6% 대 57.3%다. 뿐만 아니라 기능직의 수가 전체직원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사서자격증이 있는 전문인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이론을 펴면서 실재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인지 필자들은 자료수집 과정에서 백두시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였을 때 사서수가 적다는 말을 몇 번 들었다. 게다가 결원도 있고, 사서 한두명이 출산휴가라도 들어가 버리면 일할

34) 이 연구에서 사용된 각종 통계자료의 기준은 '95년을 시작으로 그해 말, 그리고 '96년 1월 1일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 <표 4>의 백두시 4개 공공도서관 직원현황과 <표 5>의 백두시 4개 공공도서관 사서의 직급별현황은 '96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했다. 그 이유는 당시 사서사무관의 승진과 그에 따른 인사이동이 각 도서관에 부분적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35) H사서와의 면담(1996. 1. 21).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D도서관의 사정이 가장 심각했다. 이 도서관은 사서가 2명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토론했다.

우리도서관은 사서 둘이서 수서, 정리, 자료실 열람·관리, 심지어 행정업무까지 해야 한다. 사서가 직원들 인건비 계산은 물론이고 연말이면 세금계산도 해야 하고, 어떤 때는 의식개혁이니 하는 별 중요하지도 않은 일까지 일일이 보고를 해야 하니까 그런 일에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 그래서 최소한 행정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라도 한 사람 더 있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래 저래 할 일은 많은데 사서수가 적어 잘 안된다. 이용자 봉사만 하더라도 정리업무나 행정업무에 급급해 하다보니 뒷전으로 밀리고, 그들에게 소홀해진다. 도서관 일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³⁶⁾

한편 위와 같은 인식의 반대편에는 ‘비록 사서수는 적지만 사서과와 열람과업무의 상당부분이 사서기능직³⁷⁾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다’라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이 의견은 강한 설득력보다 현실의 이해부족에서 생긴 듯하다. 단지 사서자격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기능적으로 일하면서 업무에 담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다수의 업무보조자로 운영되어도 된다는 말인가. 물론 어느 일이나 업무의 보조자는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은 현재의 체제가 아니라 기존 사서기능직을 사서직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인원편성속에서, 각자의 직급에 따라 업무가 분장되어야 한다고 사서들은 이야기 한다. 그 속에서 사서수의 확보와 공공도서관의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백두시 공공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을 직급별로 나누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 내용은 아래 <표 5>와 같다.

36) C사서와의 면담(1995. 11. 13).

37) 언제부터인가 현장에서는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능직을 ‘사서기능직’이라 부른다. 이들 중에는 준사서자격증 소지자도 있고, 정사서자격증 소지자도 있다. 그리고 어떤 도서관은 그들의 수가 사서직의 수와 비슷한 도서관도 있다.

〈표 5〉 백두시 공공도서관 사서의 직급별현황
(1996년 3월 1일 현재, 현원/정원)

| 연 번 | 도서관명 | 사서수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1 | A도서관 | 10/10 | | 2/2 | 3/5 | 5/3 | |
| 2 | B " | 11/12 | 2/2 | 2/2 | 4/4 | 3/4 | |
| 3 | C " | 14/15 | 2/2 | 2/2 | 4/5 | 4/6 | 2/ |
| 4 | D " | 2/2 | | | /1 | 1/1 | 1/ |
| 계 | | 37/39 | 4/4 | 6/6 | 11/15 | 13/14 | 3/ |

(출처: 백두시 A·B·C·D도서관 요람을 바탕으로 현장방문조사, 1996. 2. 23)

위에서 각 공공도서관 사서의 직급편성은 해당 도서관 관장의 직급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정서기관이 관장으로 있는 B도서관과 C도서관은 5급 사서사무관부터, 행정사무관이 관장으로 있는 A도서관은 6급부터 사서의 직급이 편성된다. D도서관은 관장이 행정주사다. 따라서 현 체제로 본다면 사서는 5급까지 승진이 가능하다.³⁸⁾ 더구나 현재 사서직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339호)에 의해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로 자격요건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나, 사서직 공개채용은 자격요건에 따라 차별화하지 않고 있으며, 대개 9급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세계화추진위원회’에 제출한 한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9급부터 공개채용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는 8급부터, 2급정사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는 7급부터 응시하도록 하며, 또한 5급 특채 제도를 도입하여 1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고급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직 관장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³⁹⁾

38) 다행히 이 문제는 1997년부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법률 제4746호, 1994. 3. 24)에 의거 그동안 공공도서관 관장을 행정직 또는 사서직으로 보하던 것을 사서직으로 단일화함에 따라 ‘사서직관장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다.

39) 釜山大學校 大學院 文獻情報學科, 實務公務員(사서직) 任用 및 育成體系의 世界化方案, 1995. 10. p. 3.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필자들은 또 다른 기대를 가져본다. '비록 사서수는 적더라도, 결원이 있더라도 현재의 구성원이 투철한 직업 의식을 가지고,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쫓겨 살아 움직인다면 변화와 결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서들의 의식을 엿보기로 했다.

직장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나 6~7년이 지난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굳이 변한 것을 찾았다면 직급이 올랐다는 것 뿐이다. 그래도 처음에는 고집을 내세워 워 사담들하고 부딪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니깐 도서관이 시끄럽고, 나 때문에 분위기가 안좋아 지는 것 같아 의기소침해 지면서 갈수록 도서관에 대한 열의가 식어진다. 어떤 때는 조용조용 보내자 싶어 시키는 대로 '예, 예'하기도 한다. 하기사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전달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⁴⁰⁾

처음 출발했을 때에는 꿈이 있었다. 도서관에 대한 내 애정만으로도 이상향의 도서관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야말로 직장인, 생활인이다 되어 있는 모습이다.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이게 아닌데' 하는 스트레스를 끊임없이 받고 있으며, 7년 동안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진명나게 일을 추진하여 결실을 본 것이 별로 없고, 그리고 그 기간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데도 나만의 노하우를 가졌다거나 어떤 분야의 베테랑이 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다.⁴¹⁾

위의 내용에서 사서들은 처음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열의를 지속시키지 못하는 면이 보인다. 도서관 일에 주체가 되어 나서기 보다 대부분 전달 받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들의 의견이 중간에서 부딪치고, 꺾이고 하는 사이에 일에 대한 열의는 사그라들고,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한다. 한마디로 일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성취감, 자신감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식 저변에 깔려있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애정은 고민의 형태로, 때로는 스트레스로 끈질기게 남아 있다. 그리고 다음의 내용에서는 '사서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 한다.

40) P사서와의 면담(1996. 2. 23).

41) M사서와의 면담(1996. 3. 1).

사서들은 '대세'에 따라 움직인다.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으면서 주위의 분위기가 일을 해야 할 상황이면 하고 안그러면 안움직인다. 한마디로 대세에 민감하다. 그래서 나는 사서들이 싫을 때도 있다. 왜 나보고 열심히 일한다고 칭찬하면서 왜 그들은 일을 하지 않는가? 나는 그저 내가 맡은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뿐이다.⁴²⁾

도서관에 있다가 가는 관장이나 행정직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여기처럼 편한데 없다'라고 이야기 한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데에는 사서들한테도 책임이 있다. 사서들이 하는 일이란 고작 책 빌려주고 받고, 앉아서 자리나 지키고 하나까 그저 쉽게 본다. 이런 사서들의 모습을 보고 어느 누가 '사서들의 업무를 통솔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고 느끼겠는가.⁴³⁾

'사서들은 맡은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고유한 업무영역을 확보하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부정적이다. 그리고 사서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드러낸다. '편안한 직업', '고작 책 빌려주고 받고, 앉아서 자리나 지키는 모습'이다. 이 부분은 이용자의 입을 통해서도 그려진다.

나는 아직까지 사서의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는다. 사서들을 보면 대부분 자리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들에게서 그저 책을 빌려 받고 언제까지 가져다 주세요라는 말을 듣는다. 그 정도다. 정보하고 사서는 전혀 연결이 안된다. 그래서 때로는 사서들이 하는 일을 보면, 원하는 번호를 찾아서 연결시켜주는 '전화교환원'의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한다. 사서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용자들에게 이해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사서를 제대로 알면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고, 이용자의 수준을 올리는 것도 사서의 임무가 아니겠는가.⁴⁴⁾

그리고 사서들도 위와 같은 이용자의 시선을 어느 정도 감지한다.

사서로부터 한두번 고마움을 받은 이용자들은 사서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대체로 그냥 사무를 보는 아가씨, 아줌마, 누나, 언니, 그 정도로 보는 것

42) J사서와의 면담(1995. 6. 9).

43) N사서와의 면담(1994. 6. 25).

44) J이용자와의 면담(1995. 8. 17).

같다. 4년제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 굉장히 놀라는 표정을 짓고, 대충 그냥 어찌어찌 해서 도서관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소리가 '출퇴근 시간 정확하고, 은행이나 기타 다른 사무실에 비하여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직업 중에서는 참으로 편한 직업이다'라고 말을 한다. 물론 우리도 때로 바빠서 나름대로 돌아가긴 하지만, 그 바쁜 것이 타 직업에 비하여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사서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냥 보통의 공무원으로 인식한다고 보면 맞을 것 같다.⁴⁵⁾

물론 여기에는 사서라는 직업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고, 사서들이 하는 일이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각인 듯하다. C도서관의 경우 개관초 사서의 정원은 16명이었으나, '95년도에 15명으로 줄었다. 사서수가 부족하다는 우리의 주장과는 달리, 공공도서관 관련기관인 교육청에서는 사서가 많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도 아마 사서들이 하는 일의 단순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이상의 논의는 과연 '사서직은 전문직인가'라는 문제제기로 이어진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것일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서라는 직업을 전문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러한 인식이 부족하다. 그 밑바탕에는 '사서가 아닌 그 누구를 얹혀 놓아도 도서관은 돌아갈 것 같은데 사서직을 어떻게 전문직이라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불신이 깔려 있다. 의사가 없다고 해서 간호사에게 수술용 칼을 맡기지 않고, 선생이 자리를 비웠다고 서무직원에게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는데, 도서관에서는, 특히 공공도서관에서는 그래도 된다는 인식이 짙다. 그것은 사서가 하는 일 자체가 전문성을 띄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사실 내게 있어 '사서가 전문직인가'라는 이 문제는 참으로 힘들고 가슴아픈 일이다.⁴⁶⁾

위의 내용은 다른 전문직업들이 그들만의 뚜렷한 업무를 가지고 있듯이, 사서 역시 '일' 자체에서 전문성을 획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서들끼리 모여 '우리는 전문가이다'라고 외친다면 그들이 기대했던 효과를 얻기

45) M사서와의 면담(1996. 3. 1).

46) M사서와의 면담(1996. 3. 1).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와의 관계속에서 전문성을 확립해야 한다. 아래의 내용은 이러한 의도를 담고 있다.

사서가 사서로서 힘을 발휘할 때에는 자료를 제공해 줄 때라고 생각한다. 처음에 도서관에 갓 들어왔을 때에는 이용자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무조건 친절하게 대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용자를 도서관에 오도록 만드는 요인은 한 개인 사서의 그 웃음엔 얼굴이 아니고 자료라는 것을 깨달는 데에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찾는 자료가 없으면 발길을 돌려 버린다. 특히 이용자는 냉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자료가 있으면 도서관도 그렇고 사서도 그렇고 다 고마워 보이지만, 몇 번 허탕을 치는 경우가 생기면 도서관이나 사서에게 미련을 가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재테크를 하기 위하여 은행을 찾고,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가고,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원을 찾는데, 도서관에는 무엇을 하러 오겠는가. 대답은 뻔하다. 바로 자료다. 이 뻔한 대답이 바로 사서의 전문성을 획득해 주는 매개체라고 본다. 도서관의 존재이유와 사서의 전문성 문제는 같은 맥락에서 풀어야 하는, 서로 고리를 물고 있는 문제라고 본다.⁴⁷⁾

위에서 필자들은 중요한 열쇠를 찾아냈다. 바로 '자료'라는 단어다. 전사(戰士)가 싸움터에 나갈 때에는 창과 방패라는 무기를 가지고 나간다. 그렇다면 사서가 전문성을 획득하고, 공공도서관을 사회속에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필요한 무기는 무엇일까. 바로 '자료', '장서'라는 무기이다. 사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자료'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의 인용문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묻는다. 그대들은 하버드 대학 사서들의 등 뒤를 보았는가? 시카고 대학 사서들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았는가? 런던 대학 도서관 사서들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보았는가? 나는 그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바로 다른 아닌 그들의 '서가', 그들의 '장서'에서 나오는 것이다.⁴⁸⁾

이상의 인적환경에서 사서는 자료(장서)를 중심으로 이용자를 대했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된다.

47) M사서와의 면담(1996. 3. 1).

48) 김정근, 앞의 책, pp. 98-99.

IV. 결 론

위에서 필자들은 ‘백두시’의 공공도서관의 모습을 시설과 인적현황을 중심으로 질적기법을 활용하여 있는 그대로 ‘그려’보았다. 먼저 시설현황에서 필자들은 ‘누가 공공도서관을 세우는가’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공공도서관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한 개인이 필요한 시설이라면 왈가왈부할 가치도 없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도서관이 아닌가. 여기에 대하여 백두시 행정당국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무지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조용한 장소에 깨끗한 시설을 지어 공공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제공하면 제할 일을 다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저 관공서 건물 하나 짓는 것쯤으로 여기는 듯하다. 공공도서관이 교육청이나 동사무소처럼 강제성을 띤 기관이 아니라 봉사기관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어디 건물만 올리면 다 도서관인가.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공공도서관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러한 문제의 발생원인에는 도서관 설립계획이나 위치를 선정하는 초기 단계에 도서관전문가들(사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데 있는 듯하다. 실제로 현장에 있어보면 어느날 어디에 공공도서관이 새로 생긴다는 말이 떠돌고, 얼마후 건물이 완공되고 언제 개관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바쁜 사람은 사서가 아니라 행정담당직원이다. 사서들은 그 과정이 마무리된 후 도서관에 넣을 책이 구입되면 그때서야 나선다. 지금도 도서관의 시설에 관한한 행정가들의 고유업무라는 인식이 만연하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일이 행정가만의 일인가. 필자들은 ‘백두시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인적현황’을 살펴보면서 공공도서관은 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시설학원과 다르기 때문에 처음 출발이 중요하며, 지역사회에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서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한 사서의 지적처럼 사서들의 의견을 전달

할 통로가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서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의견 전달기구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다음 인적환경에서는 사서들의 슬픈 자화상이 그려진다. 스스로는 전문직이라 생각하지만, 사회속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모순구조속에서 많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공공도서관에 처음 근무하면서 가졌던 열정, 자부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되어 버리고, 어느날 정체(停滯)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에 당황해 한다.

우리는 한 개인의 삶에서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보람인지 알고 있다. 특히 사서로서의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은 면담을 통한 자료수집과정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을 때다. 이용자들에게 매번 ‘그 자료는 없습니다’라는 대답속에서, 실망해 돌아가는 그들의 처진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과연 어떤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자료의 배경이 없는 상냥함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어떻게 또 다른 꿈으로 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현장의 사서들이 사회속에서 정체되어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고민은 자연스럽게 ‘장서’의 문제로 연결된다. 그들의 탈출구는 바로 ‘장서’에 있다. 그래서 필자들은 이 연구에 있어서 역시 ‘백두시’를 사례로 하여 사서들이 든든하게 배경으로 들고 나올 수 있는 자료구성의 요인들, 즉 현재의 장서분석과 수서업무구조를 분석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시설과 인적현황에 이어 장서현황이 ‘그려졌을’ 때 필자들이 시도하는 우리나라 시지역 공공도서관의 초상화는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A Portrait of Physical Environment and Human Resources in Municipal Public Libraries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City of 'Paek-tu'—

Kim, Jung-gun* · Kim, Soon-hwa**

〈Abstract〉

The writers have attempted to produce a portrait of municipal public libraries in their present stage of development. They have used the case of a Southeastern city anonymously described as 'Paek-tu'. The portrait vividly reveals the ignorance on the part of city educational officials who govern the public libraries and the frustration on the part of certified librarians.

The writers have extensively relied on interviews, participant observation, and document resources for analysis.

* Professor, Dept. of Library, Archive and Informatio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Dept. of library, Archive and Informatio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